

2022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심의 총평(1차 무용)

- 회의일시 : 2021. 11. 29(월) 14:00~17:00
- 회의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예림, 손혜리, 심정민, 이의신, 송시경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무용계에서 창작산실이라고 불리는 극장이다. 특히 아르코예술극장은 우리 무용계의 르네상스기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연간 엄청난 수의 창작 작품을 올리고 있는데다가 극장 자체가 춤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무용가들의 선호도가 높다. 2009년 개관하여 무용공연을 분산 수용하고 있는 대학로예술극장은 실험적이고 다매체적인 공연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무용계에 있어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의미와 가치는 무용계를 대표할 만한 상당수의 축제 및 행사, 단체 및 개인의 대관 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뚜렷하게 드러났다.

2022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대관 공모 1차 심의는 세부적으로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심사위원 5명(외부 4명과 내부 1명)이 연극, 뮤지컬, 다원, 행사, 기타 분야 중에서 무용 총 78건과 기타 11건 총 89건을 대상으로 사전 서류 검토 및 가채점을 하여 제출한 후, 2021년 11월 29일 1차 장르별 대면 심의를 통해 가채점 평균 75점 이상에 대해서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 및 등위를 확인하였다.

심의기준으로는 공연작품의 예술성, 공연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공연작품의 해당 장르 파급효과, 신청단체의 활동 실적 및 운영 역량을 꼽을 수 있다. 무용계를 아우르는 축제 및 행사, 작품 자체의 예술성, 역사적 의미와 가치, 사회적 가치 실현, 예술가로서의 가능성 등 다양한 특질을 가진 신청 대상을 한정된 대관 일정에 최대한 많이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차 통합 심의에 진출할 대상의 건수는 다음과 같다. 1차 심의의 결과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은 35건 신청 중 24건,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은 14건 신청 중 12건,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은 17건 신청 중 16건,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은 23건 중 신청 중 15건을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무용과 기타 분야에서 총 89건의 신청 대상 중 67건을 2차 통합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75.28%의 1차 심의 선정율을 보였다.

위와 같은 신청 현황을 통해 아르코예술극장에 대한 무용계의 선호도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독립 무용가와 무용단의 대관 신청이 저조한 편이었는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창작적, 실연적 어려움이 심화된 현실을 방증한다. 뿐만 아니라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대관에 선정되더라도 지원기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연 자체를 성사시키기 어려운 현실에서 해당 극장의 대관 신청에 대한 심리적 위축을 반영하

리라 본다. 무용계의 다양한 창작 및 실연 활동 고취를 위해 하나의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극장부서와 지원부서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다.

심의 과정에서 거론된 사항 중에는 계획의 충실성 부분에 대한 재고 의견이 많았다. 우선, 일부 축제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높은 의미와 가치를 지녔다 할지라도 계획의 구체성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참가 무용가나 무용단의 명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구체적 계획이 부실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경력을 작성하는 부분에서, 단체 신청인데 개인 실적을 올리거나 개인 신청인데 단체 실적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신청 주체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바탕으로 적정성 높은 경력을 기재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극장의 대관 공모에서 발표된 기준(셋업 2일 이상)에 부합하지 못하여 서류심의 단계에서 탈락한 사례도 있는 만큼 공모 기준을 정확히 숙지한 후 신청하기를 바란다.

극장과 매칭에 있어 재고해야 할 사항도 있었다. 일부 축제나 단체에서 여러 극장(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과 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과 소극장)에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 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신청 건마다 점수의 차등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극장 대관의 특정 기간을 독식할 경우 다른 신청 대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연의 성격이나 작품의 스타일에 맞는 극장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 경우도 있었는데 특히 해당 작품이나 공연이 대극장에 어울리는지 소극장에 어울리는지를 적절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도 있다.

2차 통합심의에서는 무용과 기타뿐 아니라 연극, 뮤지컬, 다원, 행사 분야를 모두 통합하여 한정된 대관 일정 내에서 선정해야 하므로 보다 복잡다양한 변수를 지닐 수 있으리라 본다.

202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무용분야(1차) 심의위원 일동